

일 주 문



생명나눔 희망걷기 대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4일 오후 1시 동국대 만해광장 일대에서 제4회 생명나눔과 희망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02)734-8050



파라미터 문화재지킴이 활동수기 공모
파라미터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0월 31일까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수기를 공모한다. (02)723-6165



문화사업단, 불교 영문용어 표준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9월 5일 한국불교역사기보관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영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공정화'를 개최했다.



종로복지관, 한기위세시풍속 행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9월 6일 홀몸어르신과 신한생명이 함께하는 송편 빚기 추석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02)742-9500



동국대, 수행형 대상 UCC 공모전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8월 27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예비 동국인이 만드는 UCC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02)2260-3984



제9회 8계계수계실천대회
임희웅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9월 24일 대구 동화사에서 제9회 8계계수계실천대회를 봉행한다. (02)927-0588



불교학연구회 논문발표회
박경준 불교학연구회 회장은 9월 25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불교학연구회 가을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02)2260-3129



불교여성개발원 채식문화 강좌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9월 27일 오후 7시 마포다보빌딩에서 '젊은 층의 식단 개선과 채식문화 확산을 위한 강좌'를 진행한다. (02)722-2101

〈인사〉 강화 전등사 주지 승석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30일 강화 전등사 주지에 승석 스님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지역특성의 포교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승석 스님은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등에서 4만여를 성만했다.

10년간 67억으로 불교학 살린다

동국대HK사업 선정 이끈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

"불교학의 영역을 한국학까지 확대 시켜 세계화의 큰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HK사업단이 교육과학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2011년도 인문학(HK)사업 인문사회분야에 선정됐다.
동국대 HK사업단은 9월 1일부터 2020년 8월까지 10년간 연간 5억 원, 총 50억 원의 국고지원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동국대의 대응기금 17억 원을 포함해 지원총액은 67억에 달한다.
동국대의 이번 HK사업 선정은 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결과로 고려대, 한국외대 등 14개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일하게 선정된 쾌거다.
HK사업이 진행되면 10년간 4명의 전임교수(임기보장)를 비롯해 1년차부터 9명의 HK연구교수가 채용돼 불교학 분야의 인사적체 해소와 연구인력 양성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국대의 HK사업 선정에 있어서 다른 대학과의 세가지 차별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한국학으로의 영역 확장 △불교학술원 산하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HK사업 연속성 비전 제시였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먼저 "한국학으로의 영역 확장으로 한국 인문학 분야에 불교학의 비중이 높아 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국대 HK사업단은 '사유와 가치', '종교와 국가', '문화와 교류'의 3영역에서 10년간 총 90가지의 세부주제를 연구한다. 특히 서학, 진화론, 변체한문, 생산경제 등 철학 역사학 문헌학 등의 생소한 분야까지 불교학과 접합한 연구가 진행된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그동안 교수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연구를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UCLA, UBC 등 해외 협력기관과도 함께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자 상호 파견을 하는 등 국제적 공동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연구는 불교학술원을 총괄 기관으로 불교문화연구원을 주관 수행기관으로 동국대경원, 전자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가 참여기관으로 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각 기관이 집중-역주-연구-활용의

각 파트를 담당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불교학술원의 역할과 정체성도 불교연구의 총괄 기능 담당으로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학술원은 HK사업과 연계해 2012년 3월 학술원 산하에 '한국 불교융합학과'를 개설한다. 한국불교융합학과는 전문대학원 과정이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그동안 HK사업을 수주한 대학을 보면 10년간 사업 이후 HK교수, HK로 전임 임용된 교수들의 진로를 두고 기존 단과대학 교수진들 간의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대학원 학과를 신설한 점이 HK사업의 연속성과 문제 개선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향후 교육과 연구가 결합된 석·박사과정을 운영해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한,중,일,미의 대학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불교 복수학위과정'도 개설해 국제 공조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물고기=차(茶)=선(禪)

선화 전시회 '생선전' 연 경문 스님

"생선(生禪)이란 수행입니다. 생선이란 생선(生鮮)이기도 합니다. 생선(生禪)이란 차(茶)속에서 찾는 평온입니다."
수덕사 견성암 경문 스님이 생선을 주제로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9월 5일까지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떡과 동양화물감으로 차(茶)와 달마, 수행, 생선 등 다양한 소재를 토대로 그린 스님의 그림은 아기자기하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경문 스님은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생선'으로 정했다. 생선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다. 스님이 말하는 생선(生禪)은 생활 속 선이면서 살아있는 수행이다. 또 물에 사는 생명체인 생선의 의미를 담았다. 어머니가 해주던 자반고등어에서 느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그림에 담은 것이다.
경문 스님은 "선전강 수미산방에 있다 보니 물고기들이 수면위로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얻은 깨달음이 있어 생선(물고기)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어릴 적부터 마당, 담배밭 등 이곳저곳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스님은 출가 후 청암사 승가대학에 다니던 시절인 10여 년 전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스님은 차를 좋아해 직접 발효차를 만드는데 작품 활동을 할 때 물감이나 먹도 우려낸 찻물과 섞어 쓴다고 했다.
이번 65점의 전시작품들 중에서는 차(茶)를 좋아하는 스님의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도 엿볼 수 있다. 나뭇잎에 물감을 칠해 종이에 찍어내 생선의 몸통을 표현한 작품은 볼수록 재미있다.
경문 스님은 "무거운 그림보다는 웃음을 줄 수 있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림을 통해 걸림 없이 수행을 해가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나는 한국불교 위해 일하고 싶다"

日 교토 불교대서 불교미술 전공한 김진숙 박사

"해외에서 지내다보니 신심(信心)만 늘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중 특히 민족적이라 불릴 만한 것들의 흔적을 찾는데 힘 쏟고 싶습니다."
일본 교토 불교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김진숙 박사는 8월 30일 자신의 저서 <내 삶의 힘표, 불교미술산책>(울리브 그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책은 김 박사가 20여 년간 일본·미국에서 생활하며 틈틈이 사찰과 박물관 등을 순례하며 만난 불교미술품에 대한 단상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책에는 교토와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일본불교 미술과 벽안의 땅 미국에서 찾은 불교미술에 대한 김진숙 박사의 식견과 소박하면서도 솔직한 감상이 담겨 있다.
김 박사는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에서 본 불교미술품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지취를 엿볼 수 있었

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발굴한 미국에서는 그들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불교와 불교미술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진숙 박사는 고려 석불 전공자이다. 전공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통일신라시대 화려했던 불교미술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민족적 특색을 지니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교토에서만 8년을 지낸 일본통이다. 김진숙 박사는 "일본은 문화유산 보존이 잘돼 있다. 보수공사 등은 거의 없고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원형보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문화유산을 비롯해 그 주변환경까지 완벽하게 가꾸고 있어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꼈다. 미국은 문화적 다양성 속에 불교문화재가 조화될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숙 박사는 "일본의 불상에



는 목조·소조상이 많다. 이들 불상은 습기, 벌레, 화재에 취약한 소재임에도 일본은 잘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신비한 불상' '영험있는 불상'이라고 해 1년·3년·60년에 한번 공개되는가 하면, 수백 년 동안 일반인에 공개하지 않고 보관 중인 것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재는 변화가 너무 빠르다. 원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비교했다.
김진숙 박사는 "문화재 보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길게, 오래 논의할 문제이지 단기간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박사는 "일본의 절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 마실 다니듯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정서적으로 생활과 가까이 자리한다"고 말했다.
김진숙 박사는 "탄광지역에 위치한 운강석굴을 비롯해 인도의 불교유적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교문화재와는 달리, 한국의 불교문화재는 자연 속에서 조화돼 문화재가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서 경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물관이라는 공간에 자리하는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가 조성될 당시의 원형 그대로 쓰임을 지닌 곳은 한국뿐이라는 설명이다.
김진숙 박사는 현재 송광사 미국 LA분원 고려사에서 종교교육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김 박사는 2012년 가을, 종립대 강단에 설 예정으로 우리 문화유산 속의 민족성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지성 콘서트' 개설

동국대(김희옥 총장)는 2학기부터 사회 각계의 명사를 초청해 강연하는 '프라이드 동국 지성 콘서트'를 개설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매주 한 차례씩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월호 스님을 비롯해 신경림 시인,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과 이재범 카카오톡 사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임권택 감독, 축구해설가 신문선 교수 등이 강단에 선다. (02)2260-3984 노덕현 기자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작법무) 사)전통불교 조계종 부설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인모집

(각 사찰행사전문)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3기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강의내용	요일	시간	특강
• 이론 및 실기,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수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경호 큰스님 직강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계(천수바라)	목	4~5시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 속성반 (010-2563-5550) 1. 바라, 작법무, 사물. 2. 사주 명리(성명학)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 다계작법, 삼귀의, 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금	5~6시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의 바라, 작법무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 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영산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발표회, 영산대제, 산신대제, 수륙대제 등)

■ 입학서류 : 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장
■ 접수일 : 2011년 9월 5일 - 9월 30일 (수시)
■ 입학식 :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사)전통불교조계종 총 본 산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부산 영산재 연수원 (바라.작법무)

부산시 범일동 1454-17 권 영축사
총무원 : 010-2563-5550, 070-4128-8975, 팩스 051)635-8975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법화종현 (정흥교) 큰스님 직강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40-0863341호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호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아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구단구궁 원리도)

강의

목·금·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010-7415-0803

*** 강의 일정표 ***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중심 (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천강령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으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지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뱀아 조상천도연계.
-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